

“기술전쟁에서 무역분쟁으로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냉전’”

등록 2019-06-04 09:55:16 | 수정 2019-06-05 13:21:30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양보는 해도 종료는 없어”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서 '국제 금융체제의 단기 리스크와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정상 사진가.세계경제연구원 과장 제공)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냉전 요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서 '국제 금융체제의 단기 리스크와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 학자 케네스 로고프와 '이번에 다르다(2009)'를 쓴 저자로도 유명하다.

라인하트 교수는 신흥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장을 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 역설'을 언급하며, 미중 간 무역분쟁을 무역'전쟁'으로 규정했다. 기술전쟁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냉전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기술 지배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여하간 무역분쟁과 차이가 없었다면 단기간에 해소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서 '안보'를 중요 의제로 다룬다"며, "냉전 요소가 담긴 이 경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업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만큼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양보는 하겠지만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무역분쟁은 관세문제 외에 비관세장벽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고 분석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중국이 만약 경상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접어드는 걸 우려해서 자국 관광객의 해외 관광을 규제한다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시작했지만 안보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어 무역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객석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신흥시장으로 들어가던 자본이 끊길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서 '국제 금융체제의 단기 리스크와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뉴스한국)

라인하트 교수는 '자본유입이 갑자기 자본유출이 될 수 있다'고 한 다른 경제학자의 우려를 인용하며 "이는 타당하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만은 아니고 신흥시장의 취약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흥시장의 과대 부채와 중국이 저소득국에 대규모 국외 대출을 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그는 "신흥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재빠르게 발을 뺄 수 있다. '유입'이 '유출'로 전환하는 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라인하트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을 말할 때 교역 규모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영향력도 커졌다.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뜻"이라면서도 "정보가 불투명하다. 파키스탄에 몽골에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로 중국이 대출한 경우 중 열두 국가가 채무 조정을 겪고 있다"며, "그만큼 중국의 대출이 제대로 통계로 잡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시장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를 잘 한 상태지만 브라질·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시장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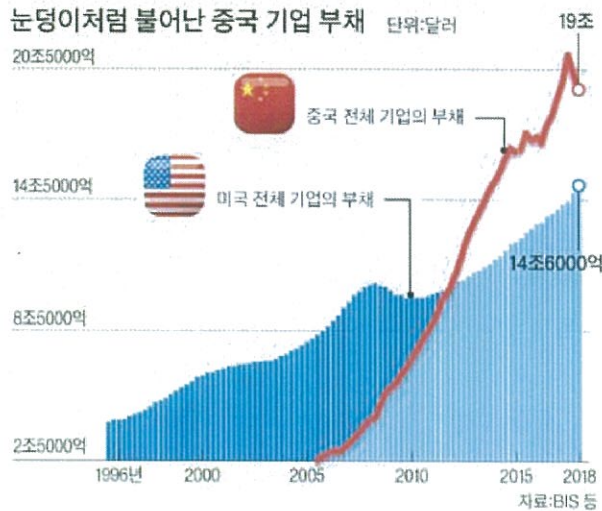
중앙일보

미·중 무역전쟁 격화되면 빛 많은 중국 기업 타격

[중앙선데이] 입력 2019.06.08. 00:21

『이번엔 다르다』의 공동저자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한국은행과 세계경제연구원(IGE)이 공동으로 연 컨퍼런스에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중앙SUNDAY가 단독으로 만나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물었다.

라인하트 '무역분쟁 후폭풍' 분석
저금리 유지하다 물가 치솟을 수도
중국 기업 빛, 지방정부보다 심각
중 경상수지 적자 땀 한국도 악영향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Q 800년간 금융위기를 연구해 논문과 책을 썼는데, 현재 글로벌 상황은 어떤가.

A "내 기본적인 예상은 '당장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 경제에 위협스

러운 구석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증한 기업 부채, 부족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낮아지고 있는 신흥국 성장률과 자본이탈 우려 등이다.”

Q 또 다른 불확실성은 없을까.

A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의 변덕이다. 여러 불확실성 가운데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꼽는다면 바로 트럼프 자신이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밀입국 사태를 이유로 멕시코산에 관세를 매기기까지 했다. 애초 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개정 후 중국을 압박하는 ‘단계적 전략’을 쓸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 등과 지정학적 갈등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Q 무역전쟁이 얼마나 위험한가.

A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1930년대 세계 무역전쟁을 벌였다. 한해 교역량이 20%가량 줄어들었다. 현재 주요 국가 간 긴장과 보복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Q 예상치 못한 결과 가운데 예를 든다면.

A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지방정부 빚을 걱정한다. 2015년 이전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단기·고금리 빚이었다. 하지만 단기·고금리 빚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금리 장기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상환됐다. 빚 구조가 좋아졌다.”

Q 현재 중국 기업의 빚은 어떤 상황인가.

A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 2015년 전후 미국 달러가 강세였다. 많은 나라의 통화가 약세였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 값이 다른 신흥국 통화보다 덜 떨어졌다. 이때부터 중국 기업들이 달러나 유로 자금을 많이 빌려 썼다.”

Q 무역전쟁이 기업 부채위기를 야기할까.

A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1997년 경험한 그런 기업 부채위기를 중국이 겪지는 않을 듯하다. 다만, 중국 기업의 수출이 위축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Q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A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실제 성장률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낮다. 중국의 낮은 성장률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좋지 않다. 무역전쟁이 더 이어지면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 리더들은 경상수지 적자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입이나 해외 관광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등과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Q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악화할까.

A “앞으로 몇 달간 상황이 악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 미·중 무역협상

의 타결을 촉진할 수 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카르멘 라인하트 1955년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났다. 10살이 된 1966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그는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몸담고 있다. 이전에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에 밝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함께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를 썼다. 논문으로 '부채시대 경제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 등이 있다.

구독신청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신문 중앙SUNDAY

디지털타임스

라인하트 美하버드 교수 “치솟는 각국부채 세계경제 위협”

김승룡 기자 입력: 2019-06-04 13:24



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 신흥국도 공공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자칫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고, 신 냉전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미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금융시스템학 교수(사진)는 4일 세계경제연구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2010년 천재 경제학자로 불리는 케네스 로고프와 함께 출간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저서로 주목받은 경제학자다. 과거 800년 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분석한 책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대체적인 원인은 부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경기 호황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위기는 반복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라인하트 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은 만성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부채가 누적되면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현재의 낮은 미 금리(2.5%)가 유지되거나 더 낮아지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과거처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등의 재정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시아나 남미 등 신흥국 부채가 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 저소득 국가에 대규모 대출을 많이 했는데, 이런 국가들의 채무불이행이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 부채 수준(약 40%)이 낮지만, 높은 민간 부채(가계부채, 기업부채 등)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공공 부채가 30% 이하였지만 당시 민간 부채가 높았고, 민간 부채가 나중엔 결국 국가 부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 분쟁으로 이어졌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칫 신 냉전체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평범한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발전했다"며 G2의 무역분쟁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성행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년 간 세계 무역성장률은 평균 5.9%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와도 맞닥뜨리고 있다"며 "예를 들어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한다면 중국이 한국 관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등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부담이 있겠지만, 안보문제로 비화한 이상 예전 상태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럴 경우 세계 교역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가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고, 달러에 대항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유동성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확장에 저금리의 재정정책 무력화

김종찬 | 승인 2019.06.07 09:25

[연재] 김종찬의 정치경제 블로그 226

미국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금리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국 기재부는 반도체 회복세 낙관에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달성 예고로 맞섰다.

이덕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며 수요회복되고 흑자 기초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6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예고하며, 4월 6억 6천만달러 적자가 '배당금 지급의 일회적'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무역전쟁에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 인플레이션과 경기확장 국면 유지되게 적절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앞서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금리동결을 밝혔던 파월 의장의 잇단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급등, 이날 다우존스가 2.06% 상승했다.

이주열 한국은행장은 금리동결을 발표하며 경기가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올 중반기 이후 경기회복을 예고, 한미간 경기진단의 격차를 보였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전망'은 신흥개도국 정부 부채에 대해 금융위기 따른 경기침체로 GDP대비 부채비가 지난해 평균 51%까지 급속도로 치솟았으며, GDP 대비 민간부채도 2007년 98%에서 지난해 169%까지 상승 최고치라고 밝히며, "과거 사례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정부의 민간 지원으로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으로 생산성을 이끈 민간투자부터 위축됐고, 금융시장 경색에서 민간부채의 정부부채 이전에 노출된 상태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전쟁 대비 금리인하의 경우, 한국은 이미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한계에 달했다.

한국의 장기 저금리 유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추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민간의 위험추구 증가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 정책의 과도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4.4%(4월 기준) 124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4천명(0.3%) 증가했고, 청년(15~29세)실업률은 11.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해 청년실업정책의 무력화를 반증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4일 이슬람혁명 지도자 호메이니 30주기에 "적(미국)의 지나친 요구와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 방법이며, 저항에는 대가가 들지만 적에게 굴복하는 대가는 더 크다"고 밝혀, 미국의 압박

에 이란이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역전쟁과 이란의 강경대응에 일본 엔화는 가치상승으로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달러 당 107엔대를 기록, 안전자산의 선호도를 높였다.

무역전쟁과 경기침체로 일본 주식시장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 최저가를 기록했고, 반면 일본 국채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카르멘 라인하트 미 하버드케네디스쿨 교수(국제금융시스템학)는 4일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미국은 만성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부채가 누적되면 쌍둥이적자(경상+재정적자)로 갈 것"이라며 "현재의 낮은 미 금리(2.5%)가 유지되거나 더 낮아지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과거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기 벗어나는 재정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자칫 대공황과, 신냉전 체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부채에 대해 "타국 비해 공공부채 수준(40%)이 낮지만, 높은 민간부채(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문제"라며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 공공부채 30% 이하였으나, 당시 민간부채가 높아 나중엔 결국 국가 부채가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레п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찬

“각국 부채 세계경제 위협한다”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07.01 13:55

카르멘 라인하트 美 하버드대 교수의 세계경제



“연일 계속되는 새로운 충격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향후 전망도 점점 나빠지게 될 것이다.” 국제금융 분야의 석학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 신흥국도 공공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자칫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신 냉전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치 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김은희 기자